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을 향하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福音新聞

大阪教会版

'82 宣教大会 標語

새 역사를 이루는 教会

— 배우며 사명을 다하자 —

- * 배우는 시간을 가지자
- * 소그룹을 만들어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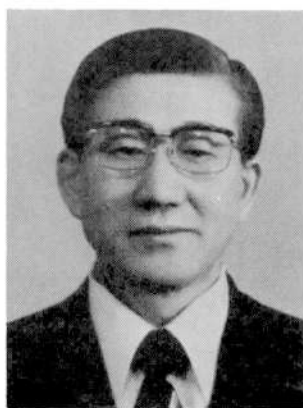
講師 朴朝駿 牧師

- 韓國서울永樂教会主任牧師 (信徒數五萬名)
- 서울大學宗敎哲學部卒業
- 美國프린스턴大學神學部卒業 神學博士



講師 金宣燾 牧師

- 韓國서울光林教会主任牧師 (信徒數二萬名)
- 監理敎神學大學卒業
- 美國워싱턴에슬레神學大學院卒業
- 美國폴러神學大學院博士課程修了
- 英國런던·엠펜칼리교회와 교화목회
- 美國폴러神學大學招請敎授



金 德 成 牧 師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宣敎大會長 金 德 成

우리 大阪敎會는 금년에 創
立 六十一週年을 맞이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우
리와 함께 하여주시었고 또
한 교회방진을 위하여 항상
희생 주신 여러선배 교역자
들과 교우들께 감사하는 바
이다.
해방직후부터 우리가 원하
고 있는 교회당 건축도 一
九九년에 준공을 보고 건
축비 미지불금도 금년에 완
불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역사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의
불과게 된 참으로 기적적인
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
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고 명명하시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이응성에 순
종하여 '82 선교대회를 개회
하며 새가지 목표들을 세웠다.
첫째는 '82 선교대회는 내
가족 내친척에게 또한 우
리교회 부근에 살고있는
동포에게 복음의 빛을 비
쳐서 빛가운데로 인도해
야 하겠다.
둘째로 '82 선교대회는 관
서지방에 살고있는 교우
와 우리동포에게 은혜만
은 기회가 되게 한다.
세째로는 우리동포에게만 아
니라 일본인들에게도 복
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
며 세계선교의 꿈을 갖
게 한다.
이제 우리는 '82 선교대회
를 열어 일어나서 빛을 발
할것과 같은 정신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日本語訳》 起きよ光を放て

在日大韓基督敎大阪敎會は、
今年創立六十一週年を迎えます。
その間、神様はいかなる逆境
の中にもいた私たちと共にいてく
ださいました。今日にいたるま
で、敎會の発展につくしてくだ
さった先輩敎役者をはじめ、敎
會員の皆さまに感謝致します。
解放直後から、私共が祈りの
中에서도願っておりました敎
會堂も、一九七九年に竣工し、
建築費用も、一九八二年六月に
完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
は、本当に奇蹟的な出来であり
ました。
「起きよ、光を放て」。あな
たの光が来て、主の栄光があな
たの上に輝いている。これは神
様が子言者イザヤを通して、イ
スラエルの民にさげんだ言葉で
あります。神様は、この世紀を
通して、神聖なシオン、すなわ
ち、神に属する敎會に對しても
同じく言っておられます。そし
て、それは私たちの敎會に對し
て言っておられる声であると信
じます。
この暗い世の中に、真実の光
生命の光、希望の光を受けてい
る私たちに向けて、起きよ、光
を放て。と語っておられます。
今、私たちは、この言葉に従
って'82宣敎大會を開くことにな
り、次の三つの目標を建てまし
た。
一、'82宣敎大會は、私たちの
家族、親族、我々の敎會の
周辺の同胞に福音の光をと
もし、その光の中に導かな
くてはなりません。
二、'82宣敎大會は、この関西
地方に住む敎會員や、我々
の同胞に、愛の恵みを受け
る機会とし、拙く福音を伝
えること。
三、我々の同胞のみならず、
日本の社会の中にも、福音
が伝えられ、世界伝道の夢
を持つようになることであ
ります。
今、私たちは、この'82宣敎大
會を開き、起きよ、光を放つよ
うに、決心と勇気を持って前進
することを強く願うものであり
ます。

主催：在日大韓基督敎大阪敎會

大阪市生野区中川西2-5-11 電話 06 (712) 3377~8

後援：在日大韓基督敎関西地方會伝道部

李忠言牧師委任式



新居浜伝道所で挙行

八月八日(大韓)午教長老
會平壤老會派送宣教師인 李忠
言牧師의 總會加入式 및 新居
浜伝道所委任式이 盛大히 舉
行되었다.

李忠言牧師가 赴任後 約一
年 동안 목수같이 親 손으로 大
修理한 개척하고 훌륭한 礼
拝堂 안에서 會衆一同 感謝와
기쁨이 넘치면서 礼拝가 進
行되었다.

午前礼拝時間에 閩西地方會
長 金信煥牧師가 에메소四
十一十六을 依拠하여 祝福
하는 敎會인 說敎가 있었다.
이이 副總會長 洪永其牧師의
司式 아래 總會加入에 對한誓
約이 있었다. 이 날 特別히
參席한 平壤老會伝道部長 金
昌善牧師가 가져온 平壤老會
의 感謝牌을 新居浜伝道所設
立과 發展을 위하여 物心面
面으로 協助해온 韓大圭執事
夫妻, 地主였던 柳振甲氏夫妻
居留民團新居浜支部團長 金乙
鳳氏夫妻에게 進呈하는 順序
가 있었고 新居浜伝道所에 平
壤老會男官敎會가 講台床用聖
經을 長老會가 聖餐·洗礼用
聖器一式을 傳達하는 式이 있
었으며 李忠言牧師의 바친



李 忠 言 牧 師

會所 進行된 委任式은 司會
者가 聖經朗誦(다모데후四·
一~五) 洪水其牧師의 說敎(犧
牲의 宣敎가 있었다.

金信煥牧師의 委任받는 李
忠言牧師와 新居浜伝道所에대
한 誓約이 있은후 金鶴潁長
老(總會憲法委員長 閩西地方
視察部長)의 牧師와 長老에
대한 권면이 있었다.

祝辭는 來賓으로서 金昌善
牧師 小島誠志牧師(日本基督
敎團四國敎區議長·宇都宮充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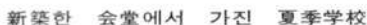
했다.

臨時堂會長 金元治牧師의 司
會로 進行된 委任式은 司會
者가 聖經朗誦(다모데후四·
一~五) 洪水其牧師의 說敎(犧
牲의 宣敎가 있었다.

金信煥牧師의 委任받는 李
忠言牧師와 新居浜伝道所에대
한 誓約이 있은후 金鶴潁長
老(總會憲法委員長 閩西地方
視察部長)의 牧師와 長老에
대한 권면이 있었다.

祝辭는 來賓으로서 金昌善
牧師 小島誠志牧師(日本基督
敎團四國敎區議長·宇都宮充牧

“和解의 집” 異伝道所
入堂式 挙行



總會副會長 洪永其牧師와 맥	인도牧師의 열심봉헌기도 洪	永其牧師의 격려말씀을, 入堂行	進, 建築終結報告, 各界의 祝	辭等 盛大히 舉行됐다.	巽伝道所는 同胞가 많이	고있는 이地域에서 特別히 南	北分斷의 비극을 福音으로	화시키고 日本人들까지도 福	音을 傳하는 뜻에서 和解	하고 있으며 淸集會도 보고	의집이라 命하고 福音宣	에 출발하게 되었다.							
巽伝道所는 入堂礼拝를 奉	기전 八月二十七日부터 二十	九일까지 神學生의 協力아래	夏季學校를 가졌는데 平均七	十余名이 參加했다. 現在는教	會學校를 中心으로 礼拝를	고있는데 約四十余名이 參	과하고 있으며 淸集會도 보고	의집이라 命하고 福音宣	에 출발하게 되었다.	巽伝道所는 入堂礼拝를 奉	기전 八月二十七日부터 二十	九일까지 神學生의 協力아래	夏季學校를 가졌는데 平均七	十余名이 參加했다. 現在는教	會學校를 中心으로 礼拝를	고있는데 約四十余名이 參	과하고 있으며 淸集會도 보고	의집이라 命하고 福音宣	에 출발하게 되었다.

二周記追悼礼拝

어느덧 九月十四日로서 崔
京植牧師님이 하나님을 부르
심을 받아 가신지 만二年이
되었다.

家族들이 이번에는 京都는
집에서 家族中心으로 追悼礼
拜를 드리자는데 의견을 같
이하여 지난十三日 五時半에
家族와 親戚, 그리고 京都南
部教会와 京都教会의 聖徒들
이 임추의 여지없이 많이 모
인 가운데 金德化牧師의 인도
로 엄숙히 舉行되었다.

追悼礼拜는 俞錫潯長老의 기
도와 金德化牧師의 성경 傳
道書三:十一・詩編二十七:十
의 말씀들 中心으로 "하나님
의 하시는 일을 우리人間이
헤아려알수 없으며 다만 服
從할 것이다." 父親은 家族들
을 버려두고 먼저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영
접하신다. 의인의 자손이 버
림을 당하거나 짐식함을 보
지 못했다(詩編三十七:二十
五)는 말씀으로 遺族들을 激
勵하였고 崔定植長老가 형님은
을 追慕하여 "형님은 성미가
급해서 믿기전에 벌써 싸움도 잘
했고 말보다 주먹이 앞섰으며
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
접한 후로는 은유하고 모든것
사람에게親切하며 和解者가
되었었다"고 追慕했다.

그후 사모님으로부터 여러
聖徒들의 끊임없는 기도하
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속에
너들이 모두 健康하며 瞬間
瞬間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
우시는 사람의 손길을 실체

婦人会関東連研修会

오늘의 선교사명
婦人会 關東連 研修會



瑞牆山少年の町天使團・幸運團에서 五十九名이 參禱한 가운데 恩惠中에 가졌다.

主題 오늘의 宣敎의 使命
副題 가장 작은자와 함께(마태十章四二) 아래 主題講師에 高完品牧師(東京第一敎會 카타ー愛子先生(NCC婦人委員會幹事) 모셨다.

講演과 特別講演, 分科會그리고 觀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參加者一同은 많은 恩惠와 充足感으로 研修會를 마쳤다. 特別 在韓被爆者의 드라마映畵 「希望」과 印度에서 民衆들과 같이 사는 미더 텔레사女火를 그린 미더 텔레사와그의世界를 상영, 참가자에게 깊은 감동을 일으켰다.

이번 研修會에는 東京敎會의 沈恩澤名譽道師, 金漢善長老 慶惠重講道師 등이 來淸淸拜와 閉會淸拜 등을 奉仕했다.

であり、現在KCCの主事をしておられる、金成元氏を迎えた。講演の中で、全協の歴史の中で地域活動の出できた背景や、その下地となっていた運動が具体的に語られた。参加者は、実際に全協運動を担っていた人より話される言葉に聞き入り、全協運動としてある地域活動に触れ触発された。

又、全協発題では、仕事をしている者の立場から、民族性や地域活動を考え、自らの置かれた状況の中での地域活動というものを力説した。全協に集まる人たちが、仕事を持った人が多い現状で、参加者へ与えたインパクトは量りしれないものであった。

参加者は二〇名と少なかったが、全協の運動としての地域活動やそこで行なわれる民族教育、自らの民族性というものを考え

大阪教会で開かれた
第四回地域活動セミナー



る契機となった。全体討論の場では、それぞれが教会青年として民族に固執して行く悩みや、地域活動に対する思いが話された。又、今後とも地域活動や民族教育というものを、展望を含めて、深く討論しなければならぬとされた。

土地・分譲住宅・建築設計・施工

建設業者許可番号大阪府知事(般54)第19580
宅建免許番号大阪府知事⑤第6014

代表取締役 鄭 且 聲
(大阪教会長老)

本社ビル 大阪府守口市竜田通1丁目13番地
電話 (06) 991-3222(代)

自動車農機具 } 部品製造
(金属挽物一式)

代表者 金 吉 雄
(武庫川教会長老)

〒661 尼崎市南武庫之荘10丁目1-17
電話 (06) 436-7840(代)

聖和商事

代表者 禹 永 吉
(武庫川教会長老)

大阪府池田市空港1-7-15(大阪国際空港前)
TEL (店) 06-843-0816
TEL (自) 06-855-3865

